

[ 종교·복지 ]

# 지친 신심 달래며 신앙심도 키우고... 여름방학 종교캠프 가볼까

## 천주교·개신교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마련

방학을 앞둔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캠프가 열린다. 학업 때문에 지친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지만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심도 키울 수 있는 종교캠프에 참여해보는 것은 어떨까.

천주교에서 '피정'(避靜·세상을 피해 고요하게 마음을 지닌다는 의미)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느님에 대해 묵상하거나 관상하는 것을 말한다. 여름방학을 맞아 천주교와 개신교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청소년 사목국은 오는 8월 8일부터 10일까지 나주

노안청소년야영수련장에서 도서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수련회를 연다. 이번 수련회는 기독교를 세계종교로 확산시킨 인물인 성(聖) 바오로 탄생 2천 주년을 맞아 '바오로 사도를 알자'를 주제로 열린다. 이번 수련회는 사도 바오로의 선교정신을 본받자는 의미로 사도 바오로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퀴즈 등을 통해 사도 바오로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다. 문의 062-380-2270.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수녀회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광주시청소년수련원 '줍음의 집'에서 '2008 살레시오 생명캠프'를 진행한다. 캠프는 '생

기 발달~앗 숨!'이란 주제로 진행되며 천연염색, 숲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문의 062-373-0942

마리아의 아들 수녀회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필리핀 수도원 체험 및 영어연수'를 준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27일부터 8월 25일까지 4주 동안 필리핀 확장현의 라구나수도원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수도원 생활을 체험과 함께 영어 연수를 받게 된다. 031-207-4982.

어린이전도협회 광주지부는 '2008 여름성경대축제'를 28~30일과 30일~8월1일 두 차례 진행한다. 이번 축제는 담양 청소년수련원 국제관에서 열리며 래프팅뿐만 아니라 어린이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주최로 지난해 열린 '용달샘 어린이 피정' 모습. (천주교 서울대교구 제공)

들이 다양한 신앙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꾸러졌다. 문의 062-251-5437.

호남신학대학교 농어촌선교연구회는 8월 11~12일까지 '제1회 농어촌지역교회 어린이 초창 여름성경캠프'를 광주시 남구 양림동 호남신학대대에서 연다. 이번 캠프는 '예수님께로 한걸음 더'를 주제로 어린이 부흥회, 촛불기도회 등 신앙심을 두텁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꾸러졌다.

이밖에 매직쇼, 워터 페스티벌 등 다양한 볼거리도 준비했다. 기독교 교육공동체인 예수교육에서는 8월 14~16일에는 순천 청소년수련원에서, 8월 18일~20일에는 무주리조트에서 '어린이 은혜캠프'를 연다. 이번 캠프는 '난, 자신있어'라는 주제로 열리며 참가자들은 '자신감 얻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또 '금식 기도하는 왜 할까'에 대한 특강도 열린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종교 칼럼



### 도암

여럿이 살아가는 세상은 항상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다. 관계에서 생기는 것도 있고 자신으로부터 생기는 것도 있다. 자신으로부터 생기는 것은 조절능력을 벗어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그리고 신체와 언행의 습관때문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려 한다. 조절의 한계를 벗어난 습관들도 포함한다. 문제의 본질을 보지 않고 외면함으로써 벗어나려 한다. 결과는 고통으로 나타난다. 이것들이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해치는 것이다.

번뇌를 자기 마음속에서 녹여내는 것이 좋다. 그러면 바깥으로 흘러나와 세상을 탁하게 만들지 않는다.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신을 정당화하기보다는 정당한 자신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자신의 품위를 다듬어 존재가치를 높여야 한다. 사랑과 존경을 받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의 바람일 것이다. 그 바람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다듬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의 능력이든 상속된 능력이든 능력이 큰 사람은 자유를 선호한다

## 자해와 자비

다. 또 그 능력을 마음껏 사용할 권리를 바란다. 타고난 것이든 상속된 것이든 그 능력은 그 사람의 복이다. 그 복만큼 생활 속에서 편리를 취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복은 그렇고 앞으로의 복은 지금부터 지나가가기 나름이다. 현재 이 순간의 선택과 행동이 현재 이후의 복을 결정한다. 이웃의 존경을 받고 살 것인가 자신만의 만족과 이질감 속에서 살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큰 능력을 잘 써서 역사적으로 좋은 이름을 남긴 이들이 있다. 이들은 능력으로 얻은 이익을 타인과 나누어 주었다. 존경받는 부자로 유명한 록펠러와 카네기는 세계평화에 기여하거나 지역사회의 자부심이 됐다.

이 나라에도 자비심이 함께하는 능력자가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능력을 갖춘 이는 아마도 각 나라의 국가수반일 것이다. 그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다수 국민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

증일아함경과 수타니파라의 부처님 말씀이다. "소 때가 강물을 건너갈 때 길잡이 소가 길을 잘 인도하면 뒤따르는 소들이 빠지지 않고 물을 건너듯, 나라의 임금이 바른 법을 행하면 모든 백성들도 편안하고 즐거우니라."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건 가까이 살건 이미 생겨난 것이건 생길 것이건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행복하라."

(송광사율원)

## 기독교 미술대전

미술인 선교회 9월 17~22일

한국미술인선교회는 오는 9월 17~22일까지 서울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제16회 대한민국기독교미술대전을 개최한다.

한국화, 서양화, 판화, 서예, 문인화, 조각, 공예 등 7개 부분으로 나뉘어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국내에 거주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

하다. 작품은 기독교 중심적인 내용이며 국내외 미발표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1차 심사는 9월 1일, 2차 심사는 19일 각각 선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시상식은 9월 22일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열린다. 대상 1명에 상금 500만원, 우수상 2명에 상금 각 100만원, 특선상 입선에 상장을 수여한다.

문의는 한국미술인선교회 홈페이지(www.91art.kr)로 하면 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법학자 10명 중 9명 "종교인 소득세 부과 찬성"

### 종교자유정책연구 설문

종교인에 대한 과세와 사형제 및 간통죄 폐지에 대해 법학자들은 찬성의견이 높은 것으로 설문 조사 결과 나타났다.

10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전국 대학의 법학자 1천500명 가운에 설문에 응한 161명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에 응답자 중 85.1%가 찬성(매우 찬성 및 찬성)했다. 또 종교 재산에 대한 과세와 종교 재산의 사유화 규제 주장에도 각각 76.4%, 86.9%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이들은 또 종교계가 급격히 쇠퇴할 수 있는 문제로 '종교간 배타성'(23.6%)을 지적했고 이어 ▲종교단체의 부정부패(18%) ▲종교재산의 세습 등 사유화(16.1%) ▲성장주의(13%) ▲종교의 정치권력화(12.4%) 등을 꼽았다. 생명복제에 대해서는 반대(75.7%)가 찬성(14.9%) 의견을 압도했으며, 낙태 역시 반대(55.3%)의 견적이 찬성(30.4%)보다 많았다.

종교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 현안과 관련, 사형제 유지에 대해서는 반대(62.1%)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찬성(56.6%), 안락사도 찬성(67%)의 견적이 많았다. 간통죄의 경우 반대(폐지 찬성)가 70.2%로 다수를 차지했다.

종교기관의 투명성 수준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항목에서는 낙제점인 평균 3.7점이 나왔으며, 종교인의 청빙성은 4.3점, 성직자에 대한 신뢰 평가 항목은 4.7점에 그쳤다.

정치권력에 대한 종교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는 6.5점, 종교의 사회정의에 대한 기여도는 5.06점으로 나왔다. 응답자들은 또 종교단체가 권력화하는지는 질문에 52.3%가 동의했다. /연남뉴스



## 광주 포도원교회 비전센터 세운다

### 남구 진월동... 내일 기공 감사 예배

광주 포도원교회(담임목사 백주석·사진)가 지역사회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기 위해 '포도원 교회 비전센터'(조감도)를 건립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12일 오후 3시 남구 진월동 포도원 교회에서 카리스 찬양선교단과 내외빈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공감사 예배와 함께 기공식을 연다.

지역민의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될 비전센터는 교회 옆에 위치해 있으며 전체면적 2만901㎡에 지상 6층, 지하 4층 규모로 오는 2010년 완공될 예정이다.

센터에는 어린이 공부방을 비롯해 노인들을 위한 쉼터, 무료급식소 등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지역 주민들이 스포츠

등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센터, 북 카페, 웨딩홀 등도 함께 문을 열어 지역민들을 위한 다목적 공간이 될 전망이다.

광주 포도원 교회 홍정모 목사는 "비전센터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닌 지역민들에게 안식과 위안을 줄 수 있는 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강한 남 '성'의 힘! MAN2080! 080-361-7000

광주·전남 가능장학 大山프리모남녀가발 가발 최신제품 70만원